

(二) 本 論

東長寺所藏의 紺紙金字「佛說彌勒成佛經」에 關한 一考察

權 熹 耕

(一) 序 言

日本の 福岡市 博多區 祇園町에 있는 東長寺의 所藏遺物調査가 八四年 여름 福岡市와 九州大學 文學部의 美學美術史研究室 및 國史研究室(日本史研究室) 共同으로 行해졌다.

이 調査에서 高麗時代의 寫經인 紺紙 金字의 「佛說彌勒成佛經」과 紺紙銀字의 「妙法蓮華經卷第六殘卷」이 發見 되었다.

金字彌勒成佛經은 正確한 年代는 알 수 없으나 奧書의 形式으로 봐서 高麗前期의 作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尙당히 注目되어 지는 作品이다.

遺存作品이 희귀한 탓에 高麗繪畫史의 正립을 위해서 重要な 位置에 高麗寫經을 두고 있지만 ① 이것 역시 穆宗九年(一〇〇六)에 制作된 「大寶積經」②을 除外 하고는 거의가 蒙古侵入 以後의 作品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意味에서 「佛說彌勒成佛經」은 繪畫史의 側面에서는 물론 高麗初의 佛敎思想과 民間信仰이란 觀點에서도 重要な 資料라 아니 할 수 없다. 단지 아쉬운 것은 卷頭가 剝落되어 卷首畫의 有無를 알 길 없다는 점이라 하겠다.

卷子本으로 된 이 「佛說彌勒成佛經」(사진一에서九까지)은 앞서도言及한 바와 같이 紺紙金字의 寫經이다. 크기는 縱長이 二五、八cm이고 橫長은 第一紙가 二七cm이며 第二紙로 부터 第五紙까지는 各各 四九、五cm이고 第六紙가 三八cm、第七紙가 三七、五cm로서 총길이는 三〇〇、三cm이다. 종이의 이음매가 各 四、〇cm이다. 天地線은 單線이고 天地間은 二、四cm이고 界線幅은 二、〇cm이다. 金剛軸의 總長은 三〇、三cm이다.

卷頭가 剝落되어 卷首畫의 有無는 알 수 없고 第五紙와 第六紙는 現狀態로는 이음매의 풀이 떨어져 있으며 第六紙에는 다음과 같은 奧書가 있다.

「佛說彌勒成佛經

第子高麗國青州官內懷仁縣戶長陪戎校尉 李英位

聖壽天長福祚無窮兵戈不起於三

邊 佛法長興於萬世天下太平 法輪常

轉五穀豐登人民常樂謹成三卷金字彌勒

經普勸受持永充供養

時乙卯五月 日謹記」

위의 奧書로 미루어 볼때 青州官內的 懷仁縣의 戶長인 李英位가 三邊에 無窮토록 兵戈가 일어나지 않기를 빌며 또 한 五穀이 豐登하고 人民이 常樂하기를 祈願하여 金字彌勒經 三卷을 만들어 共養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이 奧書는 時乙卯五月로만 적고있어 정확한 制作年代를 헤아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佛說彌勒成佛經」이 高麗後期의 作品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이 奧書에서 充分히 찾아 낼 수 있으니 그 첫째로는 「聖壽天長」으로 始作되는 奧書의 書式이라 할 수 있다. 蒙

古侵入以後 즉 元이 高麗에 強力한 힘을 行事하던 至元年間과 그以後에 制作된 作品들이 元을 意識하고 奧書를 쓸 경우 「皇帝萬年」 혹은 「皇帝萬歲」로 시작되는 것이 凡例인데(사진三) 比해 여기에서는 「聖壽天長」으로 적고 있다. 이러한 예는 日本 卷岐의 安國寺所藏의 高麗初彫大藏經인 「大般若經(總五九一卷)③의 每卷의 奧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墨書로 쓰여져 있는 이들 奧書중에서 第三十卷을 例로서 소개코저 한다. (사진四)

菩薩戒弟子南瞻部州高麗國金海戶長禮院使許珍壽

特爲

聖壽天長邦家地夕隣兵永息慈視九族

福海增深 次亡孝尊靈法界衆生成無上

道之願

謹成六百般若經永充

供養 重熙十五年丙戌四月日

看經比丘 曇光

己巳十二月二日 記

道林

上記한 바와같이 發願者의 官等姓名이 먼저 記錄된 후 「聖壽天長」으로 시작 되는 書式이 「佛說彌勒成佛經」의 奧書의 書式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版經은 年記가 重熙十五年으로 되어 있으나 重熙十五年에 制作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④ 重熙十五年에는 이미 完成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重熙十五年은 高麗의 靖宗十二年(一〇四六年)에 該當한다.

둘째는 靑州官內의 懷仁縣의 戶長이었던 李英位의 陪戎校尉라는 武散階의 品階에서 時代를 推測해 볼 수 있다.

武散階는 成宗十四年(九九六年)에 制定 되었으며⑤ 「佛說彌勒成佛經」의 發願者였던 李英位가 除受했던 陪戎校尉는 武散階의 總二十九品階중 從九品上으로 끝에서 두번째 品位이다⑥. 高麗初 武散階는 老兵⑦과

工匠이나 樂人⑧ 혹은 女眞이나 耽羅의 王族이나 酋長⑨들에게도 제수하였지만, 武臣亂에 의해 權力이 中央集權의 體制를 갖추기 以前까지 강력한 豪族의 存在였던 鄉吏들에게도 수여 했으니 다음과 같은 例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① 顯宗十年에 鑄造된 正祐寺鍾記⑩에

「菩薩戒弟子高麗國興麗府棟梁彥修名保、戶長陪戎校尉金○○」라는 銘文과

② 毅宗二年에 建立된 安東의 權適墓誌⑪의

「公安東府人也、曾王父戶長陪戎校尉諱均漢」

③ 三國遺事卷四寶壤利木條에

「正豐六年辛巳 大金年號本朝毅 宗即位十六年也 九月、郡中古籍裨補記、准清道郡前戶長

禦侮副尉李則禎戶右右人消息及諺傳記載(省略)」

④ 高麗史卷五德宗世家에

「德宗元年二月壬寅朔、以通州振威副尉戶長金巨、別將守堅、當庚戌年丹兵之來、堅壁固守、又禽其大夫馬首、加金巨郎將、守堅贈郎將。」

①의 例에서 顯宗十年(一〇一九年)戶長金氏가 陪戎校尉의 武散階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②의 例인 權適의 墓誌는 毅宗二年(一一四八年)에 建立되었지만 그의 曾祖父인 均漢이 陪戎校尉를 받은 것은 적어도 數十年 혹은 백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도 있으니 顯宗朝에서 늦어도 靖宗朝까지 該當하지 않을까 史料된다. 또한 ③의 例는 毅宗十六年(一一六六年) 清道郡의 前戶長 李則禎이 武散階의 從八品上인 禦侮副尉를 받은 사실을 알려주며 ④의 例에서는 德宗元年(一一三二年)에 通州戶長인 金巨의 武散階가 從六品上인 振威校尉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戶長 金巨는 守堅과 함께 庚戌年인 顯宗十年(一〇一九年) 거란의 침입 때의 戰功으로 金巨는 武官의 職인 郎將을 加해 받았고 守堅은 郎將이 贈與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例로서 武散階는 武官의 職과는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鄉吏의 武散階는 一種의 名譽職에 해당 하였다는 것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武散階는 戶長 以上에게만 주어졌던 것

으로 짐작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史料는 「高麗史」卷一 二世家 睿宗三年二月辛卯條에

「御神鳳樓·肆赦(省留)、州縣進奉長吏、加一等同正職、職滿者、加武散階、承天府進奉戶長以上、加武散階、副戶長以下、加二等職、無職者、許初職、」

이 記錄은 睿宗의 生母인 柳氏가 明懿太后라는 尊號를 받았던 때의 記錄으로 ⑫ 長吏(鄉吏)로서 職滿者 즉 退職한 者와 柳氏의 고향인 承天府 ⑬의 戶長以上에게만 武散階가 하나씩 加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武散階가 하나의 名譽職이었음을 말해주며 ⑭ 또한 副戶長以下、加一等職으로 記錄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武散階가 戶長以上에게만 주어졌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佛說彌勒成佛經」의 發願者인 懷仁縣의 戶長 李英位의 武散階가 陪戎校尉였다는 점과 위의 ①과 ②의 例를 관련하여 注視해 볼 만 하다.

셋째로 「靑州官內懷仁縣」이라는 地名에 관한 考察로서 懷仁縣은 中原道의 靑州牧의 七縣中의 하나이다. 「高麗史」卷五六、地理志二에는 다음과 같은 記錄을 찾아 볼 수 있다.

「靑州牧、本百濟上堂縣、新羅神文王五年、初置西原小京、影德王、陞西原京、太祖二十三年、改靑州、成宗二年、初置十二牧州、其一也、十四年、置十二州節使、號全節軍、屬中原道、顯宗三年、廢爲安撫使、九年、定爲牧、爲八牧之一、屬郡二、縣七、領知事府一、知事府二、縣領官二。」 이 記錄에서 太祖二十三年 처음으로 靑州라 부르기 시작했고 成宗十二年 二牧을 설치했을 당시 그 하나가 되었고 顯宗九年 八牧이 다시 정해졌을 때 또한 그 八牧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靑州縣에 屬해 있던 懷仁縣에 관해서도 역시 「高麗史」卷五六、地理志一에 실려 있는데 그 記錄은 다음과 같다.

「懷仁縣、本百濟未谷縣、新羅景德王、改名昧谷、爲燕山郡領、高麗初更今名、顯宗九年來屬後、以懷德監務來魚、禡王九年置監務」
즉 懷仁縣은 顯宗九年 靑州牧에 來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靑州官內」라 함은 靑州官內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나 곧이 「靑州官內」로 記錄되고 있으므로 靑州에 대한 考察을 간단히 하고저 한다.

「高麗史」의 世家에 靑州라는 地名이 자주 나오는데 高宗以後의 靑州는 合境도 北靑이며 ⑮ 顯宗以後의 靑州는 바로 靑州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關해 좀 더 살펴보면 靑州는 弓裔때부터 요새로서 重視되었으며 ⑯ 太祖 역시 이 지역을 攻破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곳으로 ⑰ 「高麗史」卷一 世家 太祖十一年條에 「秋七月丙辰、自將三年山城、不克、遂幸靑州」라는 記錄이 있는데、同卷五十七地理志二의 慶尙道尙州牧報令郡條를 살펴보면 「本新羅三年郡、景德王、改爲三年郡、高麗初、改保齡爲今名、顯宗九年來屬、明宗二年、置監務、有俗離山 新羅時爲中祀、」이라는 記錄이 있어 太祖가 스스로 진주지휘 하였으나 攻破하지 못하고 靑州로 물러났던 三年山城은 新羅의 남은 豪族세력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던 俗離山이 있는 保寧地方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高麗史」卷五七 地理志二의 慶尙道 尙州牧 開寧郡條를 살펴보면 「開寧郡、本甘文小國、新羅取之、眞興王、置軍主、爲靑州、眞平王、廢州、文武王、爲甘文郡、景德王、改今名、顯宗九年、來屬、明宗二年置監務。」라고 記錄되고 있어 顯宗九年 牧州를 改編할 때 慶尙道 尙州牧으로 編入된 保令郡과 開寧郡이 靑州와 有關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考察한 靑州牧의 記錄에서 太祖二十三年 靑州로 改名했다고는 하지만 「高麗史」의 世家篇에서 靑州라는 記錄은 顯宗二年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⑯ 그때까지 靑州로 通用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로 彌勒信仰이란 點에서 考察하지 않을 수 없다. 彌勒經의 發願이란 彌勒信仰의 盛行이란 點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側面에서 생각 해 볼 때 이 彌勒經의 發願은 文宗以後 華嚴宗과 瑜伽宗이 강력해지기 前까지의 彌勒信仰이 盛行하던 時期이거나 ⑰ 그렇지 않다면 一三世기以後 神秘的影響을 강하게 띠면서 民衆들에 의해 敎理 보다는 중

八方歲智慧威德色力具足安隱快
 三病一者受利二者飲食三者
 二歲入
 城長十二
 福德之人充滿其中以福德人故豐樂安
 穩其城七寶上有樓閣戶牖軒窓皆
 真珠羅網悉覆其下街巷道陌廣千二里掃
 昔王宮殿在此池上常於夜半降微細雨
 用淹塵土其地潤澤辟如油塗行人往來去
 有金屋時世人民福德所致巷陌寥寥有明
 珠柱皆高十里其下
 之明不復為用城邑
 細微玉塊絛以金沙覆地寥寥皆有金銀之
 聚有大夜叉神名跋陀波羅賤塞加
 此城掃除清淨若有便利不淨地裂受之受
 已還令人命持終自然行詣家闈而死時世
 安樂無有惡賊劫竊之患城邑聚落元開門
 者亦無衰惱水火刀兵及諸飢饉毒害之難
 人常慈心恭敬和順調伏諸根語言謙遜舍

此城掃除清淨若有便利不淨地裂受之受
 已還令人命持終自然行詣家闈而死時世
 安樂無有惡賊劫竊之患城邑聚落元開門
 者亦無衰惱水火刀兵及諸飢饉毒害之難
 人常慈心恭敬和順調伏諸根語言謙遜舍
 利弗我今為汝粗略說彼國界成邑富樂之
 畢其諸園林地泉之中自然有八功德水
 青紅赤白雜色蓮花遍覆其上其池四邊四
 寶階道象鳥和集鴉鴨鴛鴦孔雀翡翠鸚
 鵡舍利鳩那羅者聚者聚等諸妙音鳥常在
 其中復有異類妙
 樹充滿國界
 介時關浮提中常有好香譬如香山流水美
 好味甘除患雨澤隨時穀稼滋茂不生草穢
 一種七種用功甚少所收甚多食之香美氣
 力充實其國介時有轉輪王名曰壤佉有四
 種兵不以威武治四天下其王子勇健多力
 能破怨敵王有七寶金輪寶馬寶珠寶寶
 女寶主藏寶主兵寶又其國王有七寶金車
 高千丈千頭千輪廣六十丈又有四大藏一

高千丈千頭千輪廣六十丈又有四大藏一
 一大藏各有四億小藏圍繞伊勒鉢大藏在
 乳酪羅國般軸迦大藏在弥提羅國寶迦羅
 大藏在須羅吒國蠟佉大藏在波羅奈國此
 四大藏縱廣千由旬滿中環寶各有四億小
 藏附之有四大龍王各自守護此四大藏及
 諸小藏自然涌出形如蓮花元執數人皆共
 往觀是時眾寶元守護者眾人見之心不貪
 著棄之於地猶如瓦石草木土塊時人見者
 皆生歡心而作是念往昔眾生為此寶故共
 相殘害更相偷劫欺誑妄語今生死罪緣履
 轉增長翅頭末城眾寶羅網亦覆其上寶鈴
 莊嚴微風吹動其聲和雅如扣鐘聲其城中
 有大婆羅門主名曰妙梵婆羅門女名曰梵
 摩婆提彌勒託生以為父母身紫金色三十
 二相衆生視之無有厭足身力無量不可思
 議光耀照耀無所障尋日月火珠都不復現
 身長千尺脅廣三十三丈面長三丈四尺身體
 具足端政無比成就相好如鑄金像肉眼清
 淨見十由旬常光四照面百由旬日月珠火
 光不復現但有佛光殊妙第一彌勒菩薩觀
 世及欲致患甚多眾主說是在大生世可

誦光明略耀無所障尋日月火珠都不復現
身長千尺臂廣三十丈面長二丈四尺身體
具足端政無比成就相好如鑄金像肉眼清
淨見十由旬常光四照面日由旬日月珠火
光不復現但有佛光殊妙第一彌勒菩薩觀
世五欲致患甚多衆生沉沒在大生死其可
憐愍自以如是正念觀故不樂在家時憐憐
王共諸大臣持此寶臺奉上彌勒勒受已
施諸婆羅門婆羅門受已即便毀壞受其
之彌勒菩薩見此妙臺須臾無常知一切法
皆亦磨滅修無常想出家學道聖於龍花
菩提樹下樹莖枝葉高五千里即出家日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時諸天龍神王不
現其身而雨華香供養於佛三千大千世界
皆大震動佛身出光焰無量國應可度者皆
得見佛

余時人民各作是念雖復千億萬歲受五欲
樂不能得勉三惡道苦妻子財產所不能救
世間無常命難久保我寺今者具於佛法修
行梵行作是念已出家學道時壞住王亦共
八万四千大臣恭敬圍繞出家學道復有八

樂不能得勉三惡道苦妻子財產所不能救
世間無常命難久保我寺今者具於佛法修
行梵行作是念已出家學道時壞住王亦共
八万四千大臣恭敬圍繞出家學道復有八
万四千諸婆羅門聰明大智於佛法中亦共
出家復有長者名須達那今須達長者是
人亦與八万四千人俱共出家復有梨師達
多富蘭那兄弟亦與八万四千人出家復有
二大臣一名栴檀二名須曼王所愛重亦與
八万四千人俱於佛法中出家蠟佉王寶女
姝女俱共出家蠟佉王太子名曰天色今提
婆那亦與八万四千人俱共出家彌勒佛
親族婆羅門子名須摩提利相智慧今體列
羅是亦與八万四千人俱於佛法中出家如是等
無量千万億衆見世苦惱皆於彌勒佛法中
出家

余時彌勒佛見諸大衆作是念言今諸人等
不以生天樂故亦復不為今世樂故未至我
所但為涅槃常樂因緣是諸人等皆於佛法
中種諸善根釋迦牟尼佛遣來付我是故今

無量千万億衆見世苦惱皆於彌勒佛法中
出家

余時彌勒佛見諸大衆作是念言今諸人等
不以生天樂故亦復不為今世樂故未至我
所但為涅槃常樂因緣是諸人等皆於佛法
中種諸善根釋迦牟尼佛遣來付我是故今
者皆至我所我今受之是諸人等或以讀誦
分別決定修妬路毗尼阿毗曇藏修諸功德
未至我所或以衣食施人持戒智慧修此功
德未至我所或以幡蓋花香供養於佛備此
功德未至我所或以布施持齋修習慈心行此
功德未至我所或以苦惱衆生令其得樂修
此功德未至我所或以持戒忍辱修清淨慈
以此功德未至我所或以施僧常食應講設
會供養飯食修此功德未至我所或以持戒
多聞修行禪定無漏智慧以此功德未至我
所或有起塔供養舍利以此功德未至我所
善哉釋迦牟尼佛能善教化如是等百千
万億衆生今至我所彌勒佛如是三稱讚釋
迦牟尼佛然後說法而作是言汝等衆生能
為難事於彼惡世貪欲瞋恚愚癡迷惑短命

所或有起塔供養舍利以此功德來至我所
 善哉釋迦牟尼佛能善教化如是等百千
 萬億眾生今至我所亦勸佛如是三稱讚釋
 迦牟尼佛然後說法而作是言汝等眾生能
 為難事於彼惡世貪欲瞋恚愚癡迷惑短命
 人中能修持戒作諸功德甚為希有
 余時眾生不識父母沙門婆羅門不知道法
 互相惱害逐刀兵劫害者互欲嫉妬諂佞曲
 濁耶偽無憐愍心更相殺害食肉飲血汝等
 而能於中修行善事是為希有善哉釋迦
 牟尼佛以大悲心能於苦惱眾生之中說誠
 實語亦我當來度脫汝等如是之師甚為難
 愚深心憐愍惡世眾生救拔苦惱今得安隱
 釋迦牟尼佛為汝等故以頭布施割截耳鼻
 手足支體受諸苦惱以利汝等勸佛如是
 開道安慰無量眾生今其歡喜然後說法福
 德之人充滿其所恭敬信受渴仰大師各欲
 聞法皆作是念互欲不淨眾苦之不能除
 捨憂感愁恨知苦樂法皆是無常勸佛
 觀察時大會眾心淨調柔為說四諦聞者同
 特得涅槃道

捨憂感愁恨知苦樂法皆是無常勸佛
 觀察時大會眾心淨調柔為說四諦聞者同
 特得涅槃道
 舍離勸佛欲往長老大家葉比丘
 俱就耆闍崛山於山頂上見大加葉時男子
 大眾心皆驚怖亦勸佛讚言大加葉比丘是
 釋迦牟尼佛大弟子釋迦牟尼佛於大眾中
 常誦讚歎隨第一通達禪定解脫三昧是
 人雖有大神力而無高心能令眾生得大歡
 喜常愍下賤貪惱眾生勸佛讚大加葉
 身言善哉大神德釋師子大弟子大加葉於
 彼惡世能修其心今時人眾見大加葉為於
 勸佛所讚百千億人因是事已厭世得道是
 諸人等念釋迦牟尼佛於惡世中教化无量
 眾生今得具六神通成阿羅漢今時說法
 處廣八十由旬長百由旬其中人眾若坐若
 立若近若遠各各自見佛在其前獨為說法
 勸佛住世六萬歲憐愍眾生今得法眼淨
 度之後法住於世亦六萬歲汝等宜應精進
 發清淨心起諸善業得見世間燈明勸佛
 身必無疑也佛說是經已舍利弗等歡喜
 受持

度之後法住於世亦六萬歲汝等宜應精進
 發清淨心起諸善業得見世間燈明勸佛
 身必無疑也佛說是經已舍利弗等歡喜
 受持

佛說勸成佛經

弟子高麗國青州高懷仁縣長臨戎校尉李萊位
 奉為

聖壽天長福祿元窮兵戈不起於三
 邊 佛法長興於万世天下太平 法輪常
 轉五穀豐登人民常樂謹成三卷金字勸佛
 經普勸受持永充供養

時乙卯五月 日謹記

교적 행위쪽으로 기울던 時期²⁰의 作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高麗後期에 이르면 武散階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²¹으로 미루어 볼때 「佛說彌勒成佛經」 高麗前期의 作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네가지 관점에서 생각 해 볼때 이 寫經이 제작된 년대인 乙卯는 武散階가 제정되었던 成宗十四年以後 文宗以前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즉 顯宗六年(一〇一五年)의 乙卯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아직도 靑州란 地名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戶長으로서 陪戎校尉라는 品階를 사용한 正祐寺銅鐘記와 權適墓誌의 事例가 역시 顯宗때 었다는 사실, 불과 二十年後의 安國寺所藏의 高麗初大藏經의 奧書의 書式이 거의 같다는 점이 乙卯가 顯宗六年의 乙卯란 점을 더욱 강력히 뒷받침 해 주고 있다.

卷首畫의 有無등 完全한 經典의 形狀을 알 길 없으나 이 經典은 後秦의 三藏鳩摩羅什譯인 「佛說彌勒下生成佛經」²²으로 現存高麗大藏經의 一行十四字 行으로 환산하여 十行 밖에 剝落되지 않고 있다. 미륵보살의 國土, 時節, 種族, 出家, 成道, 轉法輪, 道人, 見迦葉등에 대해 상술하고 있는 「佛說彌勒成佛經」 이외에도 二部の 彌勒經이 이때에 더 만들어 졌다는 것은 前述한 奧書의 「謹成金字彌勒經三卷」이라는 記錄으로 알 수 있으나 彌勒六部經²³ 중 어느 經典이었던가는 확실하 알 수 없다. 그러나 彌勒三部經이라 할때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佛說彌勒下生經」 「佛說彌勒大成佛經」을 의미하므로 나머지 二部는 宋의 沮渠京聲이 번역한 兜率天의 莊嚴과 彌勒이 兜率天에 나게된 因緣및 彌勒을 觀하는 사람도 하늘에 往生한다는 信仰을 지니고 있는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과 西晉의 竺法護의 번역으로서 當來世에 兜率天으로부터 下生하여 龍華樹 아래에서 成道한 후 三回說法으로 衆生을 제도할 것에 關한 記錄을 적고 있는 「佛說彌勒下生經」일 것으로 思料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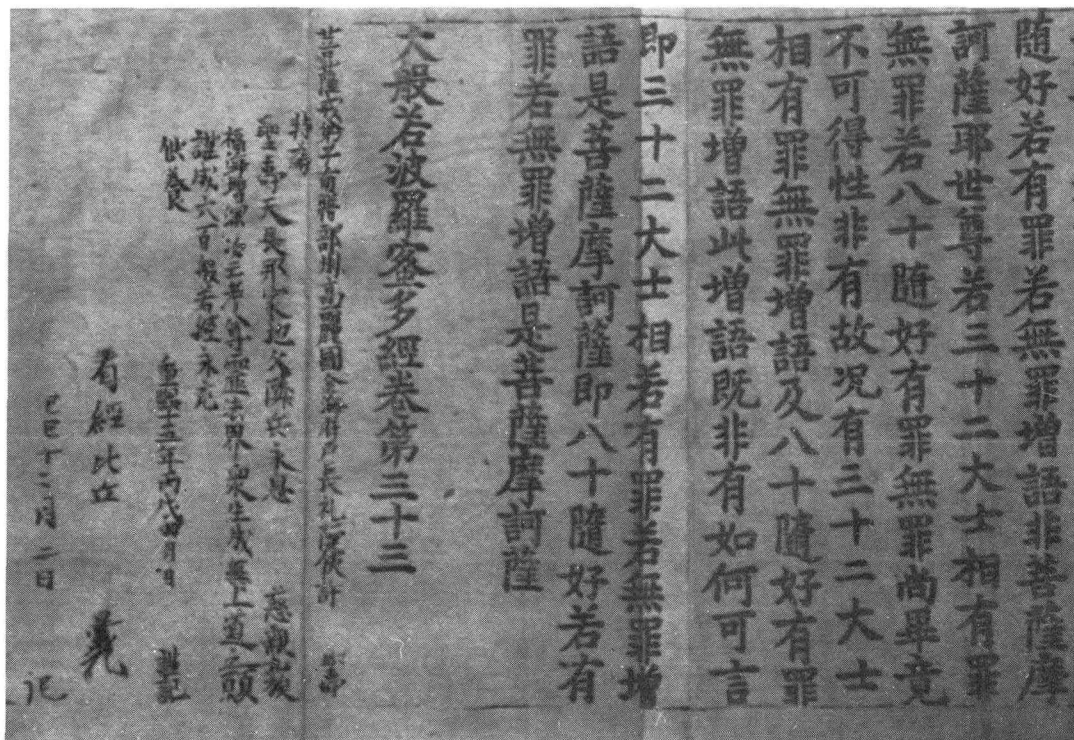


사진 10

(三) 結 語

이상과 같은 考察을 통해서 볼때 이 東長寺所藏本은 현종 四年의 高麗初의 作品으로 繪畫史의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高麗初 彌勒과 民衆信仰이란 側面에서도 상당히 貴重한 資料이다. 또한 書體研究라는 點에서 는 보다 貴한 資料라 아니할 수 없으니 같은 歐陽詢體로 쓰여지고 있으나 高麗後期의 寫經體보다는 筆이 더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書體에 관한 問題는 앞으로의 계속적인 研究課題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단지 史料의 價値를 重視하여 年代 推定을 重點적으로 다루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註]

- ① 權熹耕「日本에 現存하는 高麗寫經」一九七六年二月發行「考古美術」二三二號 p. 14~p. 30參照.
- ② 昭和三三年一月一八日發行大和文華館特別展圖錄「高麗佛畫」參照. 이「大寶積經」은 一九八三年夏季休假中 筆者가 東京國立博物館의 協調로 직접 調査. 므로 이에 관한 論文은 현재 投稿중임.
- ③ 一九八四年 夏季放學中 筆者는 東國大學校의 對馬嶺壹岐調査의 第二次調査에 參與하여 對馬壹岐調査를 하였는데, 이미 千惠鳳教授에 의해 判明된 對馬嚴原町의 對馬歷史資料館所藏의 「大般若經」과 壹岐의 安國寺所藏의 「大般若經」은 같은 高麗初彫大藏經이란 것이 또한 判明되었다. 이에 關해서는 앞으로 千教授의 論文이 發表될 것으로 안다. 단지 여기에서 重要な 의문점으로 남는 것은 版本의 끝이 어둡게 墨書의 奧書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이미 版이 完成되어 版本을 적어 내주 려므로 썼을 것이므로 적어도 이 版은 重熙十五年 以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高麗史」卷七七 百官志二의 武散階 參照
- ⑤ 上同
- ⑥ 「高麗史節要」卷二, 穆宗己亥二年冬十月條, 「高麗史」卷四, 顯宗四年九月庚戌年條 參照.
- ⑦ 「高麗史」選舉三의 「文宗七年」條 및 朝鮮總督府編 「朝鮮金石文總覽」上(七十六年一月一〇日亞細亞文化社)의 p. 279 「七長寺慧昭國師塔碑」의 奧書 參照
- ⑧ 「高麗史」卷九, 文宗世家 三十七年二月辛未 및 同卷十一, 肅宗世家五年二月乙巳條 參照.

- ⑩ 前掲書「朝鮮金石文總覽」上 p. 240 「正祐寺朝鮮鐘記參照」
 - ⑪ 前掲書, p. 353 參照.
 - ⑫ 「高麗史」卷八八, 后妃傳一, 明懿太后柳氏 參照.
 - ⑬ 「高麗史」卷五六, 地理志一, 王京開城府屬縣貞州條 및 卷八三 兵志三 州縣軍京畿項 前前掲書「朝鮮金石文總覽」의 p. 342 「興王寺圓明國師墓誌」參照
 - ⑭ 退官者와 承天府의 戶長以上에게만 武散階를 주었다는 것은 武散階를 그만 卽 制約했다는 것일 의미함.
 - ⑮ 「高麗史」卷二十三 世家高宗十一年條, 卷四十六 世家 恭讓王三年條 및 卷一三五, 列傳辛禡十一年條參照.
 - ⑯ 「高麗史」卷一 世家 太祖元年條 參照
 - ⑰ 前掲書卷一 世家 太祖元年條 및 二年, 十一年條參照.
 - ⑱ 「高麗史」卷四 世家 顯宗二年條參照
 - ⑲ 許興植, 「高麗의 國師, 王師制度와 그 機能」, 「法과 宗教」宗教法學會, 八二年 창간호 參照.
 - ⑳ 許興植 「三세기 高麗佛敎界의 새로운 傾向」韓沽勛博士停年記念史學論叢, 一九八一年參照.
 - ㉑ 旗田 巍, 「高麗의 武散階」, 「朝鮮學報」第二十一, 二十二合併特輯號, p. 433 參照.
 - ㉒ 「佛說彌勒成佛經」은 原始經典의 명칭으로 高麗大藏經의 「佛說下生成佛經」에는 版의 맨 끝에 「彌勒成佛經」이라고 版의 張을 표시한 위이다 기록하고 있다.
 - ㉓ 宋의 沮渠京聲譯의 「佛說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과 後秦의 鳩摩羅什譯의 「佛說彌勒大成佛經」, 譯者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東晉錄에 달려 있는 「佛說彌勒來時經」西晉의 竺法護가 번역한 「佛說彌勒下生經」, 唐의 義淨의 번역인 「佛說彌勒下生成佛經」, 後秦의 鳩摩羅什의 번역 「佛說彌勒下生成佛經」이 바로 彌勒六部經인.
- 參照文獻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朝鮮金石文總覽」上
- 旗田 巍 「高麗의 武散階」(朝鮮學報第二十一, 二十二合併號)
- 武田幸男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の研究」(一)(朝鮮學報第二十五輯)
- 末松保和 「高麗四十二都府考略」(朝鮮學報第十四輯號)
- 武田幸男 「高麗時代의 鄉職」(東洋學報第四十七)
- 金鍾國 「高麗時代의 官吏について」(朝鮮學報二十五輯)
- 邊太燮 「高麗後期의 武班에 대하여」(서울대학교論文集)
- 金鍾國 「高麗武臣政權と僧徒의 對立抗爭に關する一考察」(朝鮮學報第二十一, 二十二合併號)